

“말 안 해도 통한다”... ‘ambient AI’로 스마트폰 혁신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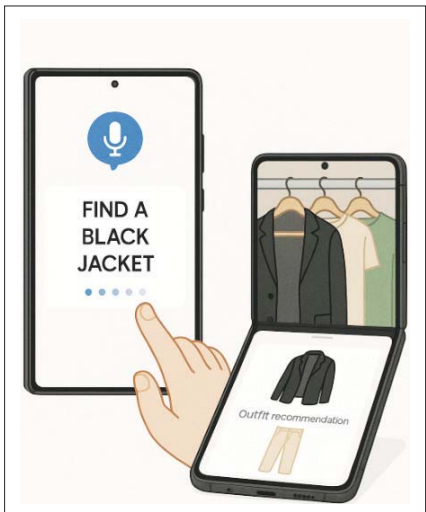
삼성 美 ‘갤 Z7’ 관련 간담회

‘보이지 않는 AI’ 구현 등 목표
음성·텍스트 없이도 상황 파악
개인화 AI로 사용자 루틴 예측
카메라로 옷장 비추면 의상 추천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AI)이 온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기술인 ‘ambient 인텔리전스’를 앞세워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음성이나 텍스트 입력없이도 상황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AI’ 구현이 목표다.

박지선 삼성전자 MX사업부 펍귀지 AI팀 부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 베일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멀티모달과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는 사용자 경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



챗GPT로 생성한 삼성전자의 음성이나 텍스트 입력 없이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보이지 않는 AI’에 대한 이미지.

아도 눈앞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친구처럼 AI와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갤럭시Z 폴드7·플립7’에 폴더블폰 특화 멀티모달 AI 기능을 탑재했다.

멀티모달 AI는 음성, 텍스트, 이미



챗GPT로 생성한 ‘갤럭시Z 폴드7·플립7’의 멀티모달 AI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에 대한 이미지.

지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술로, 입력 방식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폴드7은 대화면을 활용해 실시간 음성 명령을 반영하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을 지원하며, 플립7은 ‘플렉스 모드’에서 카메라로

옷장을 비추면 어울리는 의상을 추천해 주는 식의 영상 기반 응답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AI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설정하고, 이를 워치, 링, XR, 가전, TV 등 다양한 기기로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워치나 링에서 수집한 생체 정보와 스마트폰의 위치·일정 데이터를 통합해 사용자의 상태와 요구를 예측하고, 맞춤형 기능을 먼저 제안하는 구조다.

이러한 ‘능동형 인터페이스’는 차세대 갤럭시 소프트웨어 ‘원UI 8’을 통해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루틴을 예측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화 AI’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약 45%는 타이핑만큼 음성 명령을 자주 활용하며, 60%는 스마트폰이 사용 패턴을 학습해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AI 경쟁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이 iOS 기반의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하고, 구글과 아마존이 음성 비서 중심 생태계를 확장하는 가운데, 삼성은 하드웨어 연동성과 인터페이스 유연성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체 언어모델 ‘가우스’를 중심으로 한 온디바이스 처리 기술과 외부 모델과의 혼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AI’ 전략은 성능과 개인정보 보호, 디바이스 최적화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로 평가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디바이스 최적화와 하이브리드 전략을 병행하는 삼성전자의 방식은 성능과 보안, 사용자 경험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며 “인터페이스 중심의 차별화 전략이 글로벌 경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3조 규모’ 유상증자 완료... 한화에어로,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

2029년까지 1조3000억 투자
모듈화 장악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법인 설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방위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기반을 확립했다. 이번 증자는 단순히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넓히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확보된 자금은 유럽,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전략 국가들에서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 스마트팩토리 구축, 그리고 공급망 강화 등의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 사상 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 /한화에어로

대인 총 2조91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확보된 자금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거점에서 생산기지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화 전략을 심화시

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 내 방산 생산 기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모듈화장악(MCS)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자주포 현대화 사업(SPH-M)에 K9A2로 참여 중이다.

고위험 기초 화약소재 니트로글리세린을 포함한 탄약 밸류체인 전반을 미국 내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탄약 추진제와 장약의 핵심 성분으로 쓰이는 고위험·고폭발성 화약 물질이다.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현지 업체와 합작법

인(JV)을 설립해 중동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협력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시장의 경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협력해 현지에 천무 유도탄 합작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80km급 천무 유도탄(CGR-080)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 등 경쟁력이 부각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 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와 현지화 전략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자금을 통해 현지 생산기지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더욱 빠르게 글로벌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전, 사우디 태양광·가스복합사업 본격화

사우디 발전사업 PF 계약 체결
5.5조 민자발전사업 금융조달 완료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동 에너지 시장 공략에 본격 착수했다.

한전은 사우디 사다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루마1·나이라야1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대해 총 40억4000만달러(약 5.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PF는 한전의 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이 자립적으로 조달한 무보증 PF 방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 상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경쟁력



사우디 루마 가스복합 발전소 예정부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있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한 사례다.

두 사업은 현재 기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금융 계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간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PF 추진 사례는 총 23건에 달하게 됐으며, 이는 국내 기관 중 최대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주한 사다위 태양광 사업은 2기가와트(GW)급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단일 사업 기준 사우디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를 통해 25년간 약 3억9000만달러(약 5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 수주한 루마1·나이라야1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총 3.8GW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25년간 약 30억달러(4조원)의 수익이 전망된다. 두 사업을 통해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전체 매출은 지분 기준 약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PF 조달은 수출 금융기관과의 협력 성과이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모델인 팀 코리아 전략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갤럭시 Z’ 사전예약... 보조금 경쟁 불붙나

단통법 폐지 앞두고 통신사 과열 예상
공시·추가지원금 최대 57만5000원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신작이 사전예약에 돌입하면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구매 혜택이 집중되는 사전예약 기간(15~25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점(22일)이 겹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단통법 폐지 직후 즉시 지원금을 풀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예약 혜택을 챙기되, 단통법 폐지 전후 통신업체의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

사는 전일부터 시작한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예약에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내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57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5000원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러한 고지원금 책정 배경에 단통법 폐지 이슈가 작용했다고 본다. 공시지원금 상한이 유지되는 마지막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설정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최근 통신 시장을 뒤흔든 변호이동 열기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